

##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의 서식

A Study on the form of text written on the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the Seongsan Mountain Fortress in Haman

---

저자 (Authors)	홍승우 Hong, Sueng-woo
출처 (Source)	<a href="#">목간과문자 21</a> , 2018.12, 77-98(22 pages) <a href="#">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1</a> , 2018.12, 77-98(2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목간학회</a>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9596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95961</a>
APA Style	홍승우 (201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의 서식. 목간과문자, 21, 77-9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0:2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의 서식

홍승우\*

- I. 머리말
- II. 물품명과 기재방식
- III. 성하목간의 서식과 물품기재방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 245점 중 대부분은 물품을 담은 짐에 부착하였던 부찰(하찰)목간들이다. 그리고 그간 이 성산산성 목간들이 매달려 있었던 짐은 수취한 稅物로 이해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수취한 물품들이 함안의 성산산성으로 옮겨진 것을 보여주며, 이 세물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자료들이 출토되면서 성산산성 목간들의 용도와 부착된 짐의 성격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성산산성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전히 끝난 지금, 성산산성 목간 전체를 종합 정리하고 재검토하여 그 성격과 용도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성산산성 목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찰목간의 성격과 용도를 밝히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그 물품명 기재방식의 특징과 그와 관련한 서식을 검토하였다. 특히 다른 목간들과 달리 특수한 서식을 가졌다고 알려져 온, 소위 ‘城下木簡’의 서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산산성 목간이 부착되었던 짐의 물품은 대부분 ‘稗’와 같은 곡물이었고, 그 양도 거의 一石으로 일정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물품명과 양 등의 정보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성하목간’ 역시 다른 성산산성 목간들에서 생략된 정보들이 더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동일한 서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산산성 목간들에서 물품에 대한 정보가 생략 가능하다는 것은, 이들이 부착된 짐들의 물품 종류와

\*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양이 매우 일정하여, 그 정보들이 없어도 짐의 출납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핵심어: 성산산성, 목간, 부찰(하찰), 서식, 성하목간

## I. 머리말

1991년에서 2016년까지 17차에 걸친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모두 245점의 목서가 있는 목간과 목서의 흔적은 없지만 목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간형 목기 14점이 출토되었다.<sup>1)</sup>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이하 성산산성 목간으로 칭함)은 한국 목간 연구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아 왔다.<sup>2)</sup> 출토 숫자가 많은 것은 물론, 형식이나 용도 및 내용이 유사한 일련의 목간군이어서, 당시 목간 자체와 그것이 사용된 행정의 다양한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산산성 목간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지명+인명(+관등)으로 파악하고 이를 축성과 관련한 지방인들의 名籍으로 보는 견해들이 주로 제기되었으나,<sup>3)</sup>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주변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물품을 담고 있는 짐에 달았던 荷札(附札)이었다는<sup>4)</sup> 주장이 나왔고,<sup>5)</sup> 이후 일부 문서목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산산성 목간을 하찰목간으로 보게 되었다. 나아가 하

-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Ⅱ』, pp.496-510. 본 논문의 목간번호는 이 책의 것을 따른다. 이하 본고에서 이 책은 간단히 『고대목간Ⅱ』로 쓴다.
- 2) 성산산성 목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정리된 바 있다. 李京燮, 2003,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 주보돈,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創刊號; 이정섭, 2013a,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 연구의 흐름과 전망」, 『木簡과 文字』 10; 윤선태, 2016, 「한국의 고대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북천박물관; 윤선태,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3) 김창호, 1998,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에 대하여」, 『咸安 城山山城Ⅰ』,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朴鍾益, 2000, 「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査와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주보돈, 2000,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基礎的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19.
- 4) 그간 일반적으로 성산산성 목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짐에 매어두었던 목간들을 하찰목간으로 불러왔다. 그런데 하찰목간이라는 용어는 일본학계의 목간 분류에서 물품에 부착하는 목간[광의 부찰목간]을, 이동을 전제로 하는 세금 등에 사용된 하찰과 창고 등에서 정리·보관을 위해 사용된 부찰[협의의 부찰목간]으로 구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붙여진 것이다(馬場基, 2008, 「古代日本の 荷札」, 『木簡과 文字』 2, p.148). 즉 하찰목간이라는 용어는 이 목간들이 수취한 稅物에 부착된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성산산성 목간들이 부착되었던 짐의 성격이 분명해지기 이전에 하찰목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짐에 부착되었던 목간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부찰목간으로 부르겠다.
- 5) 윤선태, 1999,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木簡의 用途」, 『震檀學報』 88; 李成市,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 출토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平川南, 2000, 「日本古代木簡연구의 現狀과 新時點」, 『韓國古代史研究』 19(2003,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찰목간의 일반적 서식이 ‘지명+인명+물품명+양’이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추가적으로 목간들이 출토되면서, 이 주장은 통설로 자리 잡아 가게 된다.

이들 목간은 성산산성에서 폐기되었지만, 기재된 지명은 모두 다른 곳이다. 그리고 같은 지명의 것은 동일한 사람이 썼으나, 지역별로는 서로 다른 사람이 썼던 것을 볼 때,<sup>6)</sup> 성산산성에서 목간을 만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7)</sup> 그렇다면 하찰목간은 기재된 지명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지명은 이 물품들이 발송된 곳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발송 당시에 인명이 함께 기재된 것을 통해, 목간에 기재된 인명들은 이 물품을 납부한 사람, 혹은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이해해 왔다.

결국 성산산성 목간은 주로 당시 上州 지역의 여러 행정거점(행정촌 혹은 郡)에서 수취된 세물들을 성산산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하찰목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하찰에 적힌 인명과 지명이 이 물품들을 낸 사람들과 수취처이자 발송처로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하찰들이 부착된 짐이 세물이 아니라, 성산산성 축조에 동원된 사람들이 스스로 마련한 식량을 이들의 출신지에서 수합하여 성산산성에게 보낸 것으로 본 견해와<sup>8)</sup> 산성 축조는 물론이고 그곳에서 군역을 지는 사람들의 식량 등으로 사용될 물품을 입역한 사람들의 출신지에서 보낸 것 혹은 그 지역에서 성산산성으로 운반된 개인적인 화물들에 부착된 것이라는 주장이 새로이 제기되었다.<sup>9)</sup> 이는 기존 통설과 달리, 하찰목간에 기재된 인물들이 이 물품의 수신자이자 사용자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새로운 주장은 계속된 발굴을 통해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면서, 성산산성 목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결과라 할 수 있겠는데, 발굴이 완전히 끝난 지금 성산산성 목간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성산산성 목간들의 전면적인 정리 및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성산산성 목간 중 소위 하찰목간으로 분류되어 왔던 부찰(하찰)목간들의 서식을 살펴보려 한다.<sup>10)</sup> 그간 많은 연구들이 성산산성 목간의 서식을 분석하고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지만,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되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산산성 목간 전체의 서식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분량이 너무 많아지므로, 이 논문에서는 그중에서도 물품명의 기재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며, 특히 물품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

6) 정현수, 201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서체」, 『韓國의 古代木簡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480.

7)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 3, pp.77-83; 이경섭,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포리표[荷札] 목간의 地名 문제와 제작 단위」, 『新羅史學報』 23, pp.138-142; 橋本繁, 2014,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pp.61-75.

8)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

9) 이재환,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韓國史研究』 182.

10) 본고에 사용된 판독문은 기본적으로 『고대목간Ⅱ』의 것을 따르며, 사용된 부호도 대부분 『고대목간Ⅱ』, p.16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독성 등을 위해 일부 기호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판독불능자=■, .....=묵흔은 있지만 글자 수를 알 수 없는 경우, [ ]=注雙行 형식, / =注雙行에서 행 바뀜 기호. 아울러 필자가 판독을 수정한 경우 별도로 적시하였다.

로 다른 성산산성 목간들과 다르게 특수한 서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어 왔던 소위 ‘城下(麥)木簡(이하 성하목간)의 서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 작업은 성산산성 목간 자체와 그것이 부착된 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성산산성 목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및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II. 물품명과 기재방식

성산산성 목간은 모두 245점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그중 가야1602, 가야2629, 가야2645, 가야2956, 가야5598 등 문서목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5점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물품에 매달아 부착하는 용도의 목간으로 파악되어 왔다.<sup>11)</sup> 그 외에도 파손 등으로 인해 외형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용도를 잘 파악할 수 없는 16점(김해1278, 가야53, 가야78, 가야79, 가야82, 가야84, 가야89, 가야1609, 가야1615, 가야1617, 가야1619, 가야2031, 가야2037, 가야2049, 가야2632, 가야5597)을 제외하면, 모두 224점의 성산산성 목간이 짐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산산성 목간들이 물품을 담은 짐에 부착되었던 부찰목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재 내용은 물품에 대한 것일 것이다. 성산산성 출토 부찰목간들을 기재된 물품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초기에 성산산성 목간을 명적으로 이해했던 것은, ‘지명+인명’의 서식을 가진 사례가 많기도 했지만, 물품명을 잘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체 부찰목간 중 절반 정도에 구체적인 물품명과 그 수량이 적시되

표 1. 성산산성 부찰목간 물품 종류 일람

물품명유무	물품표기	목간숫자	구분
있음(114)	稗	96	곡물(112) 가야4687 稗와 麦 모두 기재
	米	4	
	麦	13	
	酒	1	기타(2)
	鐵	1	
없음(110)	負	28	곡물추정(49)
	發	1	
	없음+곡물단위(石)	11	
	없음	32	
	결실·판독불능	38	

11) 문서목간으로 분류되는 가야1602와 가야2645도 외형으로는 짐에 부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내용상 문서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 있지 않다.<sup>12)</sup> 이 때문에 초기에는 성산산성 목간이 물품명이 있는 하찰목간과 없는 명적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sup>13)</sup>

하찰목간에 기재된 물품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稗로 모두 96점의 목간에 기재되어 있다. 『고대목간Ⅱ』 판독문 기준으로는 추정 판독을 포함하여 97점이지만,<sup>14)</sup> 이는 가야4692(× 稗十五斗V)의 추정판독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사진 1>에서 제시한 가야4692의 적외선 사진에서 볼 때, 상단 파손부에 걸쳐 있는 글자는 ‘下’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많은 부분이 지워져 있어 자형이 명확하지 않지만 ‘麦’의 필획이 보인다. 또 아래가 ‘十五斗’임이 거의 확실하므로, 뒤에 살펴볼 성하목간과 같은 서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가야4692의 두 번째 글자는 ‘麦’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稗는 96점의 목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실 성산산성 하찰목간에 대한 이해의 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稗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稗—을 彼日(波旦)의 이표기, 곧 외위로 파악하여 인명부에 해당하는 목간이 아닐까 추정하다가, 이를 곡물인 피로 보게 되면서, 부찰의 성격을 가진 목간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야42(陽村文尸只V)와 가야1597(陽村文尸只稗V)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물품명이 없는 것도, 물품명 稗가 생략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성산산성 목간이 부찰목간임이 분명해 진 것이다.

稗 외의 곡물 물품명으로는 米와 麦(麥)이 있다.<sup>15)</sup> 이 중 米를 먼저 보면 『고대목간Ⅱ』의 판독문 기준으로는 5점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가야2017의 『栗(米)稗石』의 두 번째 글자 ‘米’의 추정 판독을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韓國木簡字典』을 비롯하여 기존 연구들에는 이 목간의 글자를 ‘栗村稗石’으로 판독하여 와서,<sup>16)</sup> 이를 ‘米’가 기재된 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고대목간Ⅱ』(p.248)의 적외선 사진상(<사진 2>①)으로는 두 번째 글자를 ‘村’으로 판독하기는 힘들다. 그러



사진 1. 가야 4692(『고대목간Ⅱ』, p.378)



사진 2①. 가야 2017(『고대목간Ⅱ』, p.248)



사진 2②. 가야 2017(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제12차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 자료집』, p.22)

12) 전체 224점 중 110점에 구체적인 물품명이 없다.

13) 윤선태는 1999. 앞의 논문에서 물품명이 있는 것은 하찰, 없는 것은 명적으로 파악하였지만, 이후 명적은 없고 대부분 하찰이라고 견해를 수정하였다.

14) 『고대목간Ⅱ』, p.27에서는 96점이라 하였는데, 판독문을 근거로 합산하면 97점이다.

15) 『고대목간Ⅱ』, p.27 표17 참조.

16) 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 2011, 『韓國木簡字典』, p.254.

				
가야2017	가야2026	가야2641	가야4697	가야5599

사진 3. '米'자 일람

나 <사진 2②>와 같이 발굴 초기에 공개된 적외선 사진에서는 '村'자로 보인다. 아울러 <사진 3>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목간들의 '米'와 비교할 때, 매우 이질적이어서, 현재로서는 이를 '米'자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sup>17)</sup> 따라서 현재로서는 '米'자가 기재된 목간은 4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sup>18)</sup>

한편 𪎮은 13점의 목간에 기재되어 있다. 『고대목간Ⅱ』의 판독을 기준으로 하면 12점이지만, 앞서 살펴본 가야4692가 '下𪎮十五斗'임이 거의 분명하므로, 13점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하목간'으로 분류되는 가야4687에는 𪎮과 稗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 곡물명이 기재된 목간의 총수는 112점이 된다.

곡물 이외 물품으로는 鐵이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가야47(× (殂)鐵十之V)]. 酒가 기재된 것도 있지만[가야2639(正月中比思伐古尸(次)阿尺夷喙V)「羅兮(落)及伐尺并作前(瓷)酒四斗瓮V)], 이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여 다른 목간들과 서식과 내용이 다르다. 이처럼 물품명이 있는 목간 114점 중 곡물류가 기재된 목간이 112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품명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 곡물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가야42의 사례를 가지고 지적한 바와 같이 '지명+인명'만 기재된 것도 사실상 '稗'가 생략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품명이 기재되지 않은 부찰목간들 역시 당연히 곡물, 특히 稗 임이 너무 당연했기에, 물품명은 생략 가능했다고 짐작되는 것이다.<sup>19)</sup>

다음으로 물품명 아래 수량에 대한 기재를 보자. 稗 뒤에 나오는 一은, 추가적으로 一石, 石, 二石 등이 나오는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물품의 양에 해당하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극히 일부의 二石 사례를 제외하면, 양이 기재된 경우 一石, 石, 一 모두 1石을 의미하므로, 대부분의 목간들에 기재된 물품 양은 1석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물품의 양이 기재되지 않은 목간의 경우도 가

17) 이 글자의 판독에 대해서는 이수훈 교수의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를 받아들여 논고를 수정하였다.

18) 다만 현재 남아있는 적외선 사진의 필획과 초기 적외선 사진의 필획이 완전히 달라, 판독문을 완전히 '粟村稗石'으로 확정하기도 주저된다. 초기 적외선 사진의 필획이 묵흔이 아니라 다른 오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목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 두 번째 글자가 '村'이 아니라 '米'가 된다면 첫 번째 글자는 '粟'이 아니라 '粟(粟)'일 가능성이 높다.

19) 물품명이 없는 하찰목간의 물품들이 곡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김해1280, 가야52, 가야76, 가야81, 가야1986, 가야1994, 가야2000, 가야2057 등에 물품명은 없지만, 곡물의 양 단위인 石이 물품명 위치에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야1988(「丘伐稗」)과 가야2029(「V丘伐稗石」)의 사례를 통해, 대체로 1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성산산성 목간에서 물품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물품명+양[1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것이나 생략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략이 가능한 것은, 굳이 그 정보를 적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이 목간들이 부착된 집은 통상 당연히 一石의 양이었기에, 하찰에서 양 정보가 생략되어도, 관계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서 관련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었던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다.<sup>20)</sup>

표 2. 곡물 양 표기 정리

곡물(숫자)	양표기	목간숫자	비고
稗(96)	稗	28	負稗 2건, 稗發 5건 포함
	稗一	2	
	稗石	56	
	稗一石	3	
	稗[결손·판독불능]	7	가야1985, 가야5585는 稗만 기재되어 있으나 뒷면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米(4)	米	1	
	米一石	2	
	米一斗石	1	
麦(13)	麦	2	성하목간 1건(가야2011) 포함
	下麦	1	성하목간
	麦石	2	
	下麦~一石	1	성하목간
	下麦~二石	2	성하목간
	下麦十五斗	2	가야4692 포함, 성하목간
	下麦十五斗石	1	성하목간
	下麦十五石	2	성하목간

한편 물품명이 없는 하찰목간들 중에 負라는 용어가 적혀 있는 것이 여러 점 나왔다. 초기에는 負를 수량 단위 내지 짐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는 견해와<sup>21)</sup> 앞의 인명과 연결하여 이 짐을 나르는 행위로 이

20) ‘石’을 곡물의 양단위가 아니라, 곡물(稗)을 담은 용기로 이해하고, ‘一’ 역시 수량과 무관하게 첫 번째 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파악한 견해도 있다(이수훈, 2004,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稗石과 負」, 『지역과 역사』 15, pp.24-30). 하지만 이는 ‘稗一石’의 표기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던 초창기에 나왔던 것이다. 지금은 稗一石의 사례(가야1996, 가야2009, 가야4687)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稗와 稗一은 稗一石의 생략형이고, 石은 곡물의 양단위임이 분명하다.

21)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p.324; 이수훈, 2004,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稗石과 負」, 『지역과 역사』

해하는 견해로 나누어졌다.<sup>22)</sup>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하찰목간 중 일부는 물품의 내용이 아니라 운반에 동원된 사람을 기재한 것이 되어, 성산산성 목간의 용도가 물품의 내용을 적은 것과 운반자를 기재한 두 종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發 사례가 있고,<sup>23)</sup> 짐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 가야2640(「▽ ▮ 冠(冠)村」▽ 此負刀寧負盜人有) 목간이 발견되면서, ‘부’가 목간이 매여 있었던 하물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임이 분명해졌다.<sup>24)</sup> 또 ‘인명+負+稗’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가야2046(×… ▮ 支負稗

표 3. 負와 發 표기 유형 정리

구분	표기유형	목간숫자	비고
負(32)	負(단독)	28	가야2640 포함
	負稗	2	가야2046, 가야4693
	下麥~負	1	성하목간
	下麥~負~二石	1	성하목간
發(6)	稗發	5	古陘 지명 목간
	發~(石)	1	가야5601

×)과 가야4693(「蓋山鄒勿負稗▽」)을 통해, ‘인명+負’ 형식 목간의 물품도 稗와 같은 곡물명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5)</sup>

그런데 負를 단순히 짐의 의미로 본다면 그 내용물에 대한 정보, 곧 구체적 물품명과 그 양에 대한 내용을 생략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물품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물품 稗, 그리고 양은 1석인 정형화된 화물에 부착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재방식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 p.32. 이용현은 結負束 중 負일 가능성을 짚막하게 언급하기도 하였다.

22) 전덕재, 200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pp.241-245; 金昌錫, 2009, 「新羅中古期の 奴人과 奴婢—城山山城 木簡과 「鳳坪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54, p.55.

23) 진주1283, 가야27, 가야1623, 가야2636, 가야4685, 가야5601에 發이 있다. 發은 古陘 지명 목간에만 등장했고 「稗發」의 형식을 가졌다. 이에 發을 ‘발송하다’는 동사로 이해하기도 하였다(이수훈, 2004, 앞의 논문, p.31). 그러나 가야5601(「此發 ▮ 德(石)莫杖之」)이 새로이 발견되면서, 發이 負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임이 분명해졌다. 다만 ‘發’은 古陘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던 특수한 용례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며, 負는 항상 곡물(稗) 앞에 나오는데 비해 發은 곡물(稗) 뒤에 나오는 차이가 있다.

24) 윤선태,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 p.165. 負가 仇利伐 지명이 있는 목간에서만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육로 운송을 반영한 표기로 이해하는 견해도 여전히 있다(金昌鎬, 2018,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新考察」, 『文化史學』 60, pp.50-51). 그러나 구리비 이외의 다른 지명 목간에서도 負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가야1607(「鄒文村內 且利負▽」), 가야2640(「▽ ▮ 冠(冠)村」▽ 此負刀寧負盜人有)가야4693(「蓋山鄒勿負稗▽」), 가야5594(「沙喙部負▽」)].

25) 가야46의 판독을 ‘可物智 ▮ 須麥石’에서 ‘可物智 ▮ 負麥石’로 수정하고(韓國木簡字典, p.195), 負의 내용물에 麥 등 다른 곡물도 있을 가능성을 개진한 견해도 있다(이재환, 2018, 앞의 논문, p.46). 자형상 해당 글자가 負일 개연성은 있지만, 서식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可物智가 인명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 다른 하찰목간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인명과 負 사이에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서식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負는 대체로 稗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負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發도 모두 稗와 함께 사용되는 것도 방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찰목간에 기재된 물품은 곡물 1석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성산산성 축조 혹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했던 식량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 물품 정보 앞에 나오는 지명과 인명은 물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현재 통설적 견해는 인명은 그것을 납부한 사람에 대한 정보로 이해하는 것이다.<sup>26)</sup> 부찰목간의 짐은 세금의 일종으로 각 지역에서 수취된 것이 그대로 성산산성으로 운반되어 사용되었다고, 곧 貢進되는 稅物에 부착되었던 것이 성산산성 목간이라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sup>27)</sup>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통설적 입장과 달리 이 물품의 수취자 내지 주인으로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성산산성 목간들의 서식이 일본의 세물에 부착된 하찰목간들에서 확인되는 것들과 차이가 있다거나,<sup>28)</sup> 모든 사람에게 곡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1석을 수취했다는 것은 주변국의 사례와 맞지 않는 점 등을 볼 때,<sup>29)</sup> 과연 이 목간이 세물을 수납할 때의 것이었겠는가라는 의문에서 야기된 것이다.

성산산성 목간의 인명은 물품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목간이 부착된 짐은 어떠한 성격이었던 것일까. 그리고 앞서 살펴본 물품 기재방식의 특징은 성산산성 목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의 답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이제 장을 바꾸어 성산산성 목간의 물품명 기재방식 중 특수한 형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성하목간’의 서식을 검토해 보자.

### III. 성하목간의 서식과 물품 기재방식

일련의 부찰목간군으로 출토된 성산산성 목간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찍부터 그 서식, 곧 기재양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왔다. 2006년의 『(개정판)韓國의 古代木簡』

26) 당이나 일본 율령의 조문에 의하면,租를 납입할 때 ‘패찰[勝]’을 제출하여 장부와 대조하고 측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天聖令 復元 唐倉庫令2(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下冊』, 中華書局, p.493)』, “諸受租 皆令乾淨 以次第收勝 同時者 先遠後近 對倉官 租綱 吏人執籌數函”; 『養老令 倉庫令2(井上光貞 等校注, 1976, 『律令』, 岩波書店, p.407)』, “凡受地租 皆令乾淨 以次收勝 同時者先遠 京國官司 共輸人 執籌對受 [在京倉者 共主稅按檢 國郡則長官監檢]”). 이때 제출하는 패찰에 해당하는 것을 성산산성 목간으로 본 것이다.

27) 전덕재, 2007, 앞의 논문; 이수훈, 2012, 『城山山城 木簡의 ‘城下麥’과 輸送體系』, 『지역과 역사』 30; 윤선태, 2012, 앞의 논문; 김창석, 2016,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百濟文化』 54; 전덕재, 2018, 『7세기 백제·신라 지배체제와 수취제도의 변동』, 『新羅史學報』 42.

28) 고대 일본 하찰목간의 서식은 일반적으로 ‘國郡鄉里(지명)+호주명(인명)+稅目+물품명+양+연월일’으로, 다음 사례를 들 수 있다. 安房國 朝夷郡 健田鄉 仲村里 戶 私部真鳥 調 鯪六斤三列長四尺五寸東一束 養老六年十月(<http://mokkanko.nabunken.go.jp/ja/6AACV5150110>). 이는 율령의 조문에 바탕을 둔 서식이다(『養老令 賦役令2(井上光貞 等校注, 1976, 앞의 책, p.251)』, “凡調 皆隨近合成 絹布兩頭 及糸綿囊 具注國郡里戶主姓名年月日 各以國印印之”). 중국의 경우도 율령에 동일한 조문이 있으므로 비슷했을 것이다(『天聖令 復元 唐賦役令2(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앞의 책, p.474)』, “並於絹繩布兩頭 各令戶人 具注州縣鄉里 戶主姓名及年月日 受訖 以本司印印記之”).

29) 박남수, 2017, 앞의 논문, p.53; 전덕재, 2018, 앞의 논문, p.71.

에서 ①지명+인명 ②지명+인명+관등 ③지명+인명+稗石류 ④인명 + 奴(人), 인명 + 乃人(負) 4유형으로 나누었고,<sup>30)</sup> 이후 새로운 서식이 추가되어 갔으며, 최근 최종 정리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5유형 분류가 제시되었다.<sup>31)</sup>

- ① 年月荷札 : 가야4686(三月中/②서식포함), 가야2639(正月中) 가야5599(壬子年/③서식포함)
- ② 城下荷札 : 대단위지명(城)+下(+곡물+양)+소단위지명+인명+곡물+양
- ③ 地名人名荷札 : [지명(城)+]지명(村)+인명[+負·發 or (곡물)+(양)] - 가장 많은 유형
- ④ 人名荷札 : 인명[+負·發 or (곡물)+(양)]
- ⑤ 地名荷札 : 지명[+負 or (곡물)+(양)]

초기에는 기재된 개별 요소들을<sup>32)</sup> 분리하여 그것이 적혀있는지에 따라 모두 분류하고자 하였지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부찰(하찰)목간임이 확실해지자, 물품(곡물+양, 부·발)은 기본적인 요소로서 생략될 수는 있어도 모든 부찰(하찰)의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여, 분류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있는 양상이다.<sup>33)</sup> 오히려 지명·인명의 기재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특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하목간’을 따로 분리한 것이 위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성산산성 목간들과 다른 형식의 목간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온 것이 성하목간이다. 성하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 4. 성하목간 일람

목간 번호	판독문	서식
진주1279	(1면)「甘文城下麥甘文本波王(村)▽」	지명+하맥+지명+지명+인명+負
	(2면)「(文)利村(知)利(兮)負▽」	

30)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 p.33. 이용현, 2006, 앞의 책에서는 ①(지명+인명), ②(지명+인명+一伐), ③(지명+인명+稗石(稗石, 稗, 稗一, 稗發)), ④(지명+인명+麥石), ⑤(지명+인명+負), ⑥(지명+인명+一伐+稗石)로 분류하였다.

31) 윤선태, 2017, 앞의 논문, pp.485-486. 한편 여러 연구자들은 다른 지역 출토 목간들과 함께 성산산성 목간의 외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나누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고대목간Ⅱ』, pp.10-14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부찰목간은 물품에 부착한 것이어서 그 용도와 관련하여 흠이나 구멍 등 외형상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에 따른 분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본고는 기재 내용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므로, 따로 외형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는다.

32) 대단위지명(城), 소단위지명(村), 인명, 관등, 곡물명, 양, 負·發, 奴(人) 등의 요소들이 주목되었다.

33) 이 분류는 성산산성 목간이 세월에 부착된 하찰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모두 하찰목간으로 명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아직 이들 목간이 세월에 부착된 것이라 확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후 서술에서 하찰목간으로 적지 않는다.

목간 번호	판독문	서식
가야1590	(1면)「甘文城下麦本波大村毛利只V」	지명+하맥+지명+인명+양(1석)
	(2면)「一石V」	
가야4687	(1면)「甘文城下麦十五石甘文V」	지명+하맥+양(15석)+지명+인명+패+양(1석)+之
	(2면)「本波加本斯稗一石之V」	
가야5595	(1면)「甘文城下麦十五石甘文本波×	지명+하맥+양(15석)+지명+인명+去之
	(2면)「伊次只去之×	
가야2026	「甘文城下米十一斗石(喙)大村卜只次持(去)之V」	지명+하(米)+양(11두석)+지명+인명+持(去之)
가야62	(1면)「甘文城下×	지명+하(이하 결손)
	(2면)「(阿)(波)×	
가야2025	(1면)「夷津支城下麦王已弥兮村V」	지명+하맥+지명+인명+양(2석)
	(2면)「弥次二石V」	
가야2058	(1면)「夷(津)支(城)下麦烏列支負V」	지명+하맥+인명+부+미상+양(석)
	(2면)「(二)石V」	
가야2011	(1면)「夷津支土斯石村末然V」	지명+지명+인명+麦
	(2면)「麦V」	
가야5596	「小南兮城麦十五斗石大(村)×	지명+맥+양(15두석)+지명(이하 결손)
가야57	(1면)「已弥兮城下×	지명+하맥+(결손)+지명(이하 결손)
	(2면)「已弥兮村×	
가야4686	(1면)「三月中鐵山下麦十五斗V」	월+지명+하맥+양(15두)+지명+인명
	(2면)「左旅河礼村波利足V」	

이 목간은 ‘대단위지명 城(군 혹은 행정촌)+下麦(+양)+소단위지명 村(현급 혹은 자연촌)+인명+負 혹은 수량 혹은 행위(持之, 去之)’의 서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부찰목간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물품명에서 앞에 ‘下’자가 붙어 있으며 대단위지명 아래에 위치하여, 뒷부분에 기재되는 여타 부찰과 다르다. ② 다른 부찰의 물품이 대부분 稗인 것에 비하여 麦이 주류이며, ‘米’와 같이 다른 곡물도 확인된다. ③ 다른 부찰은 물품양이 1석인데 비해, 보통 15석으로 그 양이 훨씬 많다. ④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持, 去)이 나오는 것이 있다. 즉 물품인 곡물의 종류와 양이 다르며, 이 목간이 부착된 물품이 어떻게 되는지가 내용에 들어가 있어, 다른 성산산성 목간들과 다른 독특한 서식을 가진 특수한 목간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위 행정단위명과 물품명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을 가장 앞에 배치하는 도치형 목간으로

보는 견해가 먼저 제기되었는데,<sup>34)</sup> 城下가 단순히 ‘城 아래’ 혹은 ‘城의’ 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하찰과 유사하다고 보았다.<sup>35)</sup> 그러나 특수한 서식과 표현인 점에 주목하여, ‘下’를 ‘下送’ 내지는 ‘내린’ 혹은 ‘下行’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기술한 것으로 보고, 뒤에 나오는 지명+인명이 이 짐의 수송을 담당한 사람으로 보거나,<sup>36)</sup> 이 짐을 받는 수령자로 파악하는 견해가 연이어 제기되었다.<sup>37)</sup>

성하목간의 내용 파악은 이 목간이 부착된 짐에 들어간 곡물의 양이 어떠한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 목간이 여타 부찰과 다른 특수한 것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그 물품양이 많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진주1279에는 양이 나오지 않으며, 가야1590에는 1석이 나오고 있어, 성하목간이 반드시 많은 양의 하물에 부착되었던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가야2026과 가야5596에 매우 특이한 양 표기가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粟米十一斗石』, 『麥十五斗石』이 그것인데, 이 중 『粟米十一斗石』을 ‘11두의 용기(석)’으로 본 견해가 있다.<sup>38)</sup> 석을 용기라 할 수는 없지만, 곡물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양을 재었다면, 즉 곡물의 가치나 낱알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량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표기가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곧 ‘11두를 1석으로 하는 粟米 1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麥十五斗石』은 ‘15두를 1석으로 하는 보리 1석’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39)</sup>

신라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의 율령에서 그러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sup>40)</sup>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睡虎地秦墓竹簡 秦律 倉律」

粟 1石 6%斗는 도정하면 糲米가 되는데 여미 1석은 (더 도정하면) 粳米 9두이며, (작미) 9두는 (더 도정하면) 穀米 8두이다. 米를 사여받거나 관청에서 수령해야 하는 경우 경우 9월이 다되도록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sup>41)</sup>

벼 1석은 속 20두가 되고, 속 20두를 도정하면 米 10두가 되며, 粳(米) 10두는 (더 도정하

34) 이용현, 2007, 「함안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負, 本波, 奴人 시론」, 『신라사학회 제67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35) 윤선태, 2012, 앞의 논문, p.173.

36) 이수훈, 2012, 앞의 논문, p.163. 한편 전덕재, 2018, 앞의 논문, p.69에서는 下를 단순히 ‘~의’ 의미로 보지만 뒤에 나오는 ‘소단위지명+인명’을 이 짐을 운반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37) 박남수, 2017, 앞의 논문; 이재환, 2018, 앞의 논문.

38) 이수훈, 2012, 앞의 논문.

39) 윤선태, 2017, 앞의 논문, p.487.

40) 이러한 환산비율은 한대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수학서 『九章算術』 제2장의 내용일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었다(粟米 粟米之法 粟率五十 糲米三十 粳米二十七 縹米二十四 御米二十一 小籩三半 大籩五十四 糲飯七十五 粳飯五十四 縹飯四十八 御飯四十二 菽麥麻 麥各四十五 稻六十 豉六十三 飧九十 熟菽一百三半 糲一百七十五).

41) “粟一石六斗大半斗 舂之爲糲米 糲米一石爲粳米九斗 九斗爲穀米八斗 有米委賜 粟禾稼公 盡九月 其人弗取之 勿鼠.”(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 윤재석 옮김, 2010, 『수호지진묘죽간 역주』, 소명출판, p.109)

면) 穀米 6%두가 된다. 麥 10두에서 糴 3두가 나오며, 菽(콩)·蒼(팥)·麻는 15두가 1석이 고, 毀糶를 지급받을 때는 10두가 1석이다.<sup>42)</sup>

「天聖令 復元 唐倉庫令8」

무릇 창고에서 내어 지급하는 여러 종류의 곡물은粟을 기준으로 한다. 稻穀과 糯穀(찰쌀)은 1두 5승을, 大麥(보리)는 1두 2승을, 蕎麥(메밀)은 1두 4승을, 小豆(팥)은 9승을, 胡麻(참깨)는 8승이 각각 속 1두에 해당한다. 黍穀·糜穀(메기장)·稷穀(찰기장)·麥飯·小麥(밀)·靑稗麥(쌀보리)·大豆(콩)·麻子(삼씨)는 1두가 속 1두에 해당한다.<sup>43)</sup>

조심스럽지만 성산산성 목간 중에 당시 신라에서 곡물마다 계량의 기준이 달랐고, 다른 곡물을 납부하거나 지급받을 때, 정해진 비율로 환산된 양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야1595(× 器 一石)를 주목할 수 있다. 파손으로 인해 그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器 一石’ 문구가 남아있다. 일반적인 부찰목간의 서식으로 이해한다면 ‘인명+양(1석)’ 혹은 ‘인명+물품명(器)+양’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器라는 글자가 量器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성산산성으로 운반된 물품들을 창고에 넣기 전에 양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양기의 존재는 필수적이므로 그 양기에 매달아 두었던 목간이 아닐까 한다.

결국 ‘麥十五石’ 역시 ‘麥十五斗石’의 오기 혹은 생략형 표기로 볼 수 있고, 가야4686의 ‘麥十五斗’ 역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의 양이 아니라 계량 기준을 적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가야4687이 주목된다. 가야4687은 다른 성하목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뒤에 ‘稗一石之’라는 다른 곡물명과 양이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앞의 ‘麥十五石’이 실제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목간이 부착된 짐의 실제 물품과 양은 뒤에 나오는 ‘稗一石’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추론이 타당하다면 성하목간에 기재된 양은 다른 하찰목간 보다 훨씬 많은 특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sup>44)</sup> 그렇다면 아마 감문성 등에서 성산산성으로 운반되는 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1~2석 정도의 짐 각각을 개별적으로 다른 인물들이 운반했다고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한다.<sup>45)</sup> 그렇기에 뒤의 인명을 수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 성하목간들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그 전체 서식을 분석해 보자. 먼저 가장 앞에 대

42) “(稻禾一石) 爲粟廿斗 春爲米十斗 十斗粳 毀米六斗大半斗 麥十斗 爲糶三斗 叔苕麻十五斗 爲一石 粟毀糶者 以十斗爲石.”(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 운재석 옮김, 2010, 『수호지진묘축간 연구』, 소명출판, p.111)

43) “諸倉出給 雜種準粟者 稻穀 糯穀一斗五升 大麥一斗二升 蕎麥一斗四升 小豆九升 胡麻八升 各當粟一斗 黍穀 糜穀 稷穀 麥飯 小麥 靑稗麥 大豆 麻子一斗 各當粟一斗.”(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앞의 책, p.494).

44) 가야2025에 二石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가야2058 역시 판독불능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二石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성하목간이 1석의 양은 아니다. 하지만 15석과 같이 다른 하찰들보다 월등히 많은 양은 없다고 하겠다.

45) 기재된 인명이 운반자라면, 동일한 이름이 여러 목간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단위지명인 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가야4686이 나오면서 약간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城이라는 단위명이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성하목간인 가야2025·가야2058의 伊津支城이 김해 1284·가야2011에 伊津支로만 기록된 사례와 같이,<sup>46)</sup> 단순히 城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단위지명이 앞에 나오는 것은 동일하므로 큰 차이라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대단위지명 앞에 ‘三月中’이라는 시간이 기재되었던 사례도 주목할 수 있다. 일본 하찰목간에서는 날짜가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주로 연월일이 적시되어 있다. 성산산성 목간에서 年이 나온 것은 가야5599(「壬子年[改]大村[刀尺]」, 「米一石」)가 있고, 월은 가야2639(「正月中比思伐古尸(次)阿尺夷喙」/「羅兮(落)及伐尺并作前(瓷)酒四斗瓮」)이 있다. 이 중 가야2639는 운반을 위해 물건에 부착한 것이라기보다, 물품 보관과 관련한 목간으로 보여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세 사례 모두 시간이 가장 앞에 나온다. 이는 시간이 뒤에 나오는 중국이나<sup>47)</sup> 일본의 사례와 다른 점으로, 신라의 서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연월[간지+월]中+대단위지명’이 부찰의 첫머리에 나온다고 여겨진다. 다만 연월은 보통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下인데, 이 下자가 뒤에 나오는 麦과 연결되어, 다른 목간들과 차별화된 서식으로 인식되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대단위지명(小南兮城) 아래 下자가 없이 바로 麦이 기재된 가야5596이 새로 발견되면서, 이 下자가 생략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下의 생략 가능성이 확인됨으로써, 가야 2025·2028과 동일한 대단위지명 伊津支가 기재되어 있고 물품명이 麦인 가야2011도 성하목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下’의 의미를 명확히 알기는 힘들다, 下가 생략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하면, 일찍이 지적된 바와 같이 단순히 ‘~의’라는 처격조사일 가능성이 크다.<sup>48)</sup> 다만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물품의 이동과 관련하여 送, 納, 進, 上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49)</sup> 물품의 이동과 관련한 용어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경우 送, 納, 進, 上이 주로 지방으로부터 상위 거점 관아 혹은 중앙으로의 이동에서 사용했던 표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下는 아마 중앙의 지시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운송되는 양상과 관련된 용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 물품을 보내는 주체는 가장 앞에 나오는 대단위지명이 되겠다.

下 다음이 ‘물품명+양’인 것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이 下 뒤의 ‘물품명(麦)+양’ 역시 그 생략 가능성이

46) 동일한 이름을 가진 城과 村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본고에서는 부찰목간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한 지명 분석은 하지 않는다.

47) 당 개원10년(722) 호탄에서 당으로 보낸 수취물에 부착되었던 하찰목간에서 중국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만 들면 다음과 같다. “(1면)拔伽不邊俱 送小麥參碩貳斗 開元十年八月四日 典 (2면)何仙 官張並 相惠.”(榮新江·文欣, 김창석 역, 2015, 『새로 발견된 漢字-호탄 문자의 이중언어 목간』, 『江原史學』 27, p.153)

48) 이용현, 2007, 앞의 논문; 윤선태, 2012, 앞의 논문; 권인한, 2013, 『한문 어법의 선택적 수용과 변용』, 『학문장과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p.148-149. <고구려 평양성 석각 제4석>의 명문이 “丙戌十二月 中 漢城 下 後 小兒 文達 節 自此 西北 行涉之”인데, 이 중 ‘漢城下’의 ‘下’를 처격조사로 볼 수도 있는데, 성산산성 목간과 유사한 용례일 수 있다.

49) 榮新江·文欣, 김창석 역, 2015, 앞의 논문, pp.153-167; 馬場基, 2008, 앞의 논문, p.162.

새로이 성하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 가야2011을 통해 제기된다. 가야2011은 ‘下+물품명(麥)+양’이 없고, 가장 뒤에 물품명 麥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성하목간과 다른 유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下’가 생략 가능하고 下 뒤의 물품명과 양이 계량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목간도 성하목간으로 분류하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하목간의 특징적인 구성 요소였던 ‘下+물품명+양’ 부분의 생략도 가능하며, ‘물품명(+양)’만이 가장 뒤에 기재되는 성하목간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下+물품명+(계량기준)양’ 아래로 ‘소단위지명+인명’이 나온다. 진주1279는 ‘甘文本波王(村)-(文)利村(知)利(兮)’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례들과 다른 점이 있다. 즉 ‘소단위지명+소단위지명+인명’ 형식으로 1명의 인물 앞에 두 개의 소단위지명이 기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글자들을 제대로 판독하기 힘들어, 이 서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아마 ‘甘文本波+■■■■村+인명’ 정도가 되어서 1명의 인물과 負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가야2058는 소단위지명이 없이 바로 인명만이 나온다. 이는 대단위 거점에 속한 인물이어서 별도로 소단위지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례를 제외하면 결론으로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단위지명+인명’의 공통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부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재방식이 있다.

- ㉠ 負(진주1279)
- ㉡ 곡물+양[稗一石之](가야4687)
- ㉢ 양[一石·二石](가야1590·가야2025)
- ㉣ 負+곡물(추정)+양[負■■■■(二)<sup>50</sup>石](가야2058)
- ㉤ 행위[持(去)-(之)<sup>51</sup>·去之](가야2026·가야5595)

일별하기에 일정한 서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일반적인 성산산성 목간들의 물품 기재 방식 검토에서 본 양상들과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의 판독불능자들을 위와 같이 추정한다면, 이는 ㉠ ㉡ ㉢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52)</sup> 나아가 ㉣의 마지막 글자가 去가 맞다면,<sup>53)</sup> 종결어미

50) 『고대목간Ⅱ』에서는 판독불능으로 하였으나, 적외선 사진상으로는 二자로 보인다.

51) 파손으로 판독할 수 없는 것을 추측한 것인데, 다른 사례들을 볼 때 ‘之’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52) 古陲 지명이 있는 목간들 중 가야2636(×(古)陲一吉利(村)本波V)×陲々支稗發V), 가야4685(「古陲一吉利村本波V」「陲々只稗發V」), 진주1283(「古陲伊骨利村■■■■」「仇仍支稗發」), 가야1623(「古陲伊骨村阿那V」「仇利稿支稗發V」)에서 稗發의 용례들이 확인되는데, 發은 負와 동일한 용어로 여겨지므로, 負와 稗의 위치는 서로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다만 ㉣형식과 가야2046, 4693 모두 ‘負+물품명’이고, 發발은 고타목간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현재로서는 發발의 순서를 고타목간의 지역적 특징으로 판단할 수 있다.

53) 『고대목간Ⅱ』의 적외선 사진상으로는 글자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가야47(×( )鐵十之V)에서 ‘물품명+수량+之’의 용례가 있고, 가야5601(「此發■■■■德(石)莫杖之」)의 사례를 볼 때도, 去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문서목간인 가야2645(…

로 내용이 끝났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종결어미 ‘-之’는 성하목간의 특수한 사례라기보다는 허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목간 기재내용의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목간들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성하목간의 마지막 부분 원래 서식은 ‘負+(필요시)물품명+양+~之’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물품명+양+之’로 끝나는 것 이외에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之’로 끝나는 것이 있어, 성하목간이 다른 목간들과 차별적인 형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우선 확실한 것은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가야 5595의 ‘去之’이다. 이는 ‘가지고 가다’, ‘없애다’, ‘갖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가야2026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가야2026에서는 ‘持’자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1글자가 더 있으며 그 자를 ‘(去)’로 추정하여 왔다. 그런데 다음 <사진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持 아래 2글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4②>는 초기에 공개된 적외선 사진인데, 이를 보면 ‘去’가 보다 확실히 보인다. 그러나 ‘去’로 추정되는 글자는 그 아래에 비스듬히 패인 부분의 상부에서 끝나고 그 아래에는 묵흔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대목간Ⅱ』에 실린 적외선 사진 <사진 4①>을 보면 패인 부분의 하단에 묵흔이 확인된다. ‘去’ 아래 한 글자가 더 쓰여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마지막 글자는 가야5595의 사례를 볼 때 ‘(之)’로 추측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면, ‘持去之’와 ‘去之’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持’는 ‘가지다’, ‘쥐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가지고 가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5601(『此發德(石)莫杖之』)을 들 수 있다. 『고대목간Ⅱ』의 판독에 의문점이 없지는 않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판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마지막이 ‘莫杖之’로 읽히는데, 杖은 일반적으로 ‘짚다’, ‘의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잡다’, ‘쥐다’ 곧 ‘持’와 유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만 앞에 ‘莫’자가 있으므로 ‘(持)去之’의 부정형이라 할 수 있겠다.

성하목간 중 단 2점에만 이러한 행위를 뜻하는 특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원래는 ‘수량+之’이지만 일반적으로 ‘-之’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한다면, 持去나 杖 역시 수량과 之 사이에 있는 것이 원래 서식이지만, 고정적인 내용이므로 흔히 생략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해 보면, 성하목간의 생략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敬白之鳥(成)成行之…不行遣之(白), 가야5598(…前去白之…食去白之) 등도 참고가 된다.



사진 4①. 가야 2026 하단부 (『고대목간Ⅱ』, p.266)



사진 4②. 가야 2026 하단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제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p.23)

연월(일)中+대단위지명[~城]+下+물품명+계량기준+소단위지명+인명+負+물품명+양  
+(행위)+之

다만 많은 경우 ‘연월(일)中’은 생략되고, 또 ‘負+물품명+양+~之’도 여러 요소가 생략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중 負 다음 오는 물품, 즉 곡물명의 생략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앞서 일반적인 부찰목간들에서는 물품명이 생략되는 이유를 생각해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 성하목간의 서식에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 물품명이 나오고 뒤에 다시 물품명이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 뒤의 물품명을 생략하지만 가야4687의 경우 뒤에 稗라는 물품(곡물)명이 나와, 두 개의 물품명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앞의 물품명이 원래 납입해야 될, 혹은 발송해야 될 물품이고, 뒤에 나오는 것이 실제 납입된, 혹은 발송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둘 다 기재해야 하고, 만약 같다면 둘 중 하나는 생략해도 좋은 것이 아닐까 한다.

가야4687은 麦 대신 稗를 납입·발송하여 그것을 목간에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麦 혹은 粳米를 그대로 납입·발송하였으므로, 뒤의 물품명을 생략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두 물품명이 동일하다면, 가야2011처럼 앞의 물품명을 생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성하목간이 일반적인 부찰들과 다른 특수한 서식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여겨진다. 성하목간끼리의 비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요소가 생략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염두에 두면 성하목간도 다른 부찰목간들과 대동소이한 서식이라 판단할 수 있다. 성하목간이 보다 많은 요소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성산산성 목간들 역시 원래는 그 요소들이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나 생략된 것일 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성산산성 출토 부찰목간들의 물품명 기재방식의 특징과 일반적인 목간들과는 다른 서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온 성하목간의 서식과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이제 결론으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성산산성 목간 서식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품 정보에 대한 전체 서식은 ‘負+물품명(稗·麦·米)+양(一石)+(행위)+종결사(之)’로 구성되어 있으며,<sup>54)</sup> 이 중 어느 것이나 생략될 수 있다. 성하목간은 그간 여타 성산산성 목간들과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다른 것들과 달리 대단위지명 다음에 ‘下+물품명+양’이라는 물품 정보가 들어가고, 그 양이 15석으로 현저히 많다고 파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들이 출토되면서 ‘下

54) 負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發의 경우 현재까지의 사례로는 그 위치가 물품명(稗) 뒤에만 나오고 있다. 다만 發은 古陲 지명 목간에만 나오고 있어 지역적인 특수한 사례로 여겨지며, 일반적인 서식은 ‘負+물품 정보’로 볼 수 있다.

+물품명+양은 이 중 일부 혹은 전체가 생략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양도 실제 집에 실려 있는 물품의 정보라기보다 계량 기준으로 여겨지며, 실제 물품의 양은 대부분 1석으로 통상의 목간들과 동일하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성하목간에서도 다른 목간들처럼 가장 뒤에 물품 정보가 기재된 사례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상 성하목간 역시 일반적인 성산산성 목간들과 거의 동일한 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성산산성 출토 부찰목간의 물품에 대한 기재방식과 전반적인 서식의 특징은, 물품에 대한 정보는 거의 대부분, 나아가 아예 완전히 생략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성산산성 목간들이 물품의 운반과 창고에서의 출납 과정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지지만 이러한 서식의 생략이 가능할 것이다. 곧 지명이나 인명에 대한 정보는 이들 목간에 필수적이지만, 물품 정보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관계자들이 당연히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있을 수 있는 특징이라 하겠다. 물품명이 확인되는 것은 대부분을 稗를 중심으로 하는 곡물이면서 그 양도 1석으로 일정하다는 점을 아울러 염두에 둔다면, 이 목간들이 부착된 짐의 내용물은 곡물 1석으로 거의 고정된 것이라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산산성 출토 부찰목간들은 그 내용물이 거의 고정적인 한정된 물품에 사용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물품 정보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을 중심으로 성산산성 목간의 서식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 검토를 바탕으로 성하목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산산성 목간은 거의 동일한 서식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이 보다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수 유형이라 알려진 '仇利伐 지명 奴人 목간'을 비롯하여 물품 이외의 요소, 곧 지명과 인명과 관련한 기재방식과 그 특징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분량의 문제로 다루지 못했다. 또 물품 정보에 대한 서식과 그 특징을 통해 성산산성 목간의 성격과 용도에 대해 접근하는 작업도 미처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별도의 원고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투고일: 2018. 10. 9.	심사개시일: 2018. 10. 25.	심사완료일: 2018. 11. 28.
-------------------	----------------------	----------------------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Ⅱ』.
- 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 2011, 『韓國木簡字典』.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 1978, 『睡虎地秦墓竹簡』, 文物出版社(윤재석 옮김, 2010, 『수호지진묘죽간 역주』, 소명출판).
- 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下冊』, 中華書局(김택민·하원수 주편, 2013, 『천성령 역주』, 해안).
- 『養老令』(井上光貞 等校注, 1976, 『律令』, 岩波書店).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2009,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함안 성산산성 木簡 발굴에서 보존까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북천박물관, 2016,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 橋本繁, 2014,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 이치 히로키(市大樹), 이병호 옮김, 2014, 『아스카의 목간』, 주류성.
- 平川南, 2003,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 고광의, 2008, 「6~7세기 新羅 木簡의 書體와 書藝史的 的의」, 『木簡과 文字』創刊號.
- 권인한, 2008a, 「咸安 城山山城 木簡 속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하여」, 『史林』 31.
- 권인한, 2008b, 「고대 지명 형태소 ‘本波/本彼’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2.
- 김재홍, 2005, 「함안 성산산성 목간과 촌락사회의 변화」, 『國史館論叢』 106.
- 金昌錫, 2009, 「新羅 中古期の 奴人和 奴婢-城山山城 木簡과 鳳坪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54.
- 김창석, 2016,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百濟文化』 54.
- 金昌錫, 2017,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韓國史研究』 177.
- 김창호, 1998,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에 대하여」, 『咸安 城山山城Ⅰ』,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金昌鎬, 2018,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新考察」, 『文化史學』 60.
-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
- 朴鍾益, 2000, 「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査와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 朴鍾益, 2002, 「咸安 城山山城 出土木簡의 性格 檢討」, 『韓國考古學報』 48.

- 순환일,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35.
- 윤상덕, 2015, 「咸安 城山山城 築造年代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14.
- 윤선태, 1999,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木簡의 用途」, 『震檀學報』 88.
- 尹善泰, 2002, 「新羅 中古期の 村과 徒-음락의 해체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25(2004 『한국고대 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 집문당).
- 윤선태, 2004, 「한국고대목간의 출토현황과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 윤선태, 2007, 「한국의 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 윤선태,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
- 윤선태, 2016, 「한국의 고대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북천박물관.
- 윤선태,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李京燮, 2003,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
- 李京燮, 2005, 「城山山城 출토 荷札木簡의 製作地와 機能」, 『韓國古代史研究』 37.
- 이경섭,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地名 문제와 제작 단위」, 『新羅史學報』 23.
- 이경섭, 2012, 「新羅의 奴人-城山山城 木簡과 〈蔚珍鳳坪碑〉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68.
- 이경섭, 2013a,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 연구의 흐름과 전망」, 『木簡과 文字』 10.
- 이경섭, 2013b,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新羅文化』 42.
- 李成市,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 출토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 이수훈, 2004,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稗石과 負」, 『지역과 역사』 15.
- 李銖勳, 2007, 「新羅 中古期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城山山城 木簡과「冷水里碑」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48.
- 이수훈, 2012, 「城山山城 木簡의 ‘城下麥’과 輸送體系」, 『지역과 역사』 30.
- 이수훈, 2014, 「6세기 新羅 奴人の 성격-〈蔚珍鳳坪新羅碑〉와 〈城山山城木簡〉을 중심으로-」, 『한국민족 문화』 52.
- 이용현, 2007, 「함안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負, 本波, 奴人 시론」, 『신라사학회 제67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 이재환, 2016, 「목간 분류와 정리방법 비교연구」,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북천박물관.
- 이재환,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韓國史研究』 182.
- 전덕재, 200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
-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 3.

- 전덕재, 2018, 「7세기 백제·신라 지배체제와 수취제도의 변동」, 『新羅史學報』 42.
- 정현숙, 201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서체」, 『韓國의 古代木簡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주보돈, 2000,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基礎的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19.
- 주보돈,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創刊號.
- 최상기,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목간과 문자』 11.
- 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木簡과 文字』 18.
- 榮新江·文欣, 김창석 역, 2015, 「새로 발견된 漢字-호탄 문자의 이중언어 목간」, 『江原史學』 27.
- 馬場基, 2008, 「古代日本の 荷札」, 『木簡과 文字』 2.
- 馬場基, 2008, 「荷札と荷物のかたるもの」, 『木簡研究』 30.
- 平川南,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일본 와세다 대학 조선문화연구소 공동연구 자료집)』.

〈Abstract〉

A Study on the form of text written on the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the Seongsan Mountain Fortress in Haman

Hong, Sueng-woo

This paper is a basic work to clarify the nature and the purpose of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the Seongsan Mountain Fortress ruins in Haman. Most of these wooden tablets are the tag attached to the luggage. Therefore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way of describing the information of the goods contained in the luggage. Especially go deep into the form of the text written on the Seongha wooden tablets which is known to have a different form of text from the other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most of the goods written on the wooden tablets were grains such as Pi(稗), and the amount of these are almost one Seok(石). So that information such as the name and quantity of the goods are often omitted.

In addition, the Seongha wooden tablets have more informations compares to the others. But most of these additional informations are also could be omitted, and also the same type and quantity of goods are written on them. Considering these facts, we can conclude that Seongha wooden tablets have almost the same form of text, unlike what was known in previous studies.

The reason why the information about the goods contained in the luggage can be omitted is because the type and quantity of the goods were constant and therefore there was no problem when the luggage was delivered and received.

▶ Key words: Seongsan Mountain Fortress, the wooden tablets, the tag attached to the luggage, form of text, Seongha wooden tablets.